

03. 한·미 FTA 교역 동향과 시사점

임병호(국제원산지정보원 주임연구원)

- 분석배경 :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여는 미국이 주도하는 거대 경제권으로의 참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 이후의 성과를 재점검하여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을 우리나라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시장에서의 동향 등을 살펴본다.
- 분석범위 : 한·미 FTA 발효 전 1년 6개월, 발효 후 1년 6개월 교역 및 주요 품목, 미국과 한·중·일 3국의 한미 FTA 발효 전후 수출입 증감동향

I. 對미 교역동향

1) 對미 교역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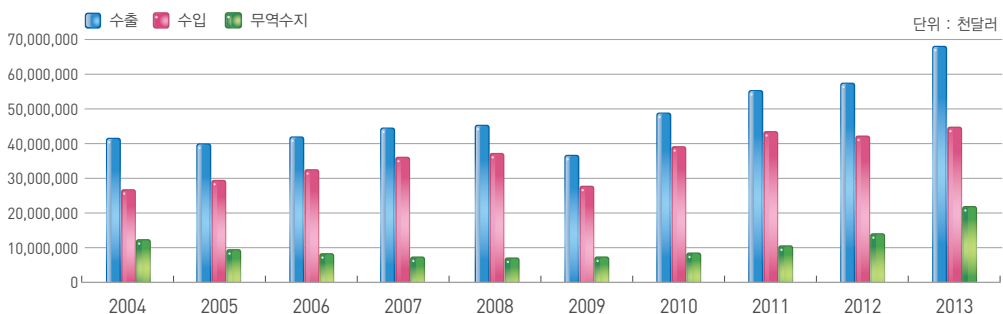
미국경기회복과 함께 한·미 FTA 효과로 무역수지·흑자 유지

2013년 11월 기준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0%(2위), 수입의 8%(3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총 수출금액은 569억 달러, 수입은 377억 달러, 무역수지는 191억 달러 흑자를 나타내는 주요 수출국이다. 2013년 11월 기준 對미 수출은 5.4%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6.3% 감소하여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1998년 이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對미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여 왔다. 무역수지 흑자폭도 1998년 24억 달러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 1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가 다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2년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흑자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증가는 미국의 국내 경기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2분기와 3분기 전기대비 2.5%와 2.8%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향후 미국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선행지수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3-1 | 對미 수출입 동향 (2004 - 2013)



주 : 2013년도는 예상치.

또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도 이러한 수출증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 2012년 상반기 미국의 對한 수입은 5.4% 증가하였는데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고무류, 플라스틱류, 섬유류, 밸브, 펌프, 공작기계는 대표적인 한·미 FTA 수혜품목이다.

그러나 향후 미국의 재정 불확실성 변수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지출의 감축, 정부 예산안 협상,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재정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다만, 재정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미 연준의 양적완화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출구전략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 유출우려가 일시적으로 접어들면서 수출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⁶⁾

2) 품목군별 수출동향

한·미 FTA 발효이후 18개월간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은 기계류와 전자제품 중심

다음은 한·미 FTA 발효시점인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발효 이후 18개월과 발효 이전 18개월을 MTI 1단위를 기준으로 비교한 수출동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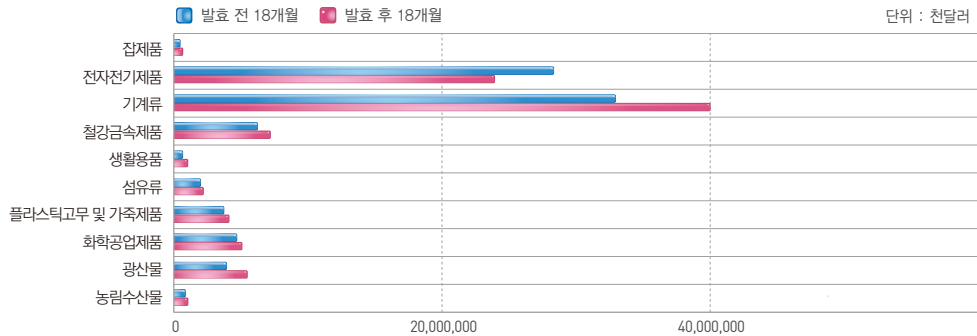
표 3-1 | 對미 FTA 발효 전후 수출증감률 (MTI 1단위)

단위 : 천달러, %

MTI 1단위		발효 전 18개월 (2010. 9 - 2012. 2)			발효 후 18개월 (2012. 3 - 2013. 8)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총계		83,675,650	100	30.0	90,230,661	100	7.8
0	농림수산물	823,606	1.0	19.4	954,216	1.1	15.9
1	광산물	3,905,455	4.7	-9.8	5,408,897	6.0	38.5
2	화학공업제품	4,620,186	5.5	46.6	4,977,794	5.5	7.7
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3,676,141	4.4	50.4	4,015,069	4.4	9.2
4	섬유류	1,949,439	2.3	10.4	2,137,757	2.4	9.7
5	생활용품	694,271	0.8	14.4	967,279	1.1	39.3
6	철강금속제품	6,204,147	7.4	81.2	7,262,965	8.0	17.1
7	기계류	33,019,369	39.5	56.0	39,978,580	44.3	21.1
8	전자전기제품	28,290,369	33.8	7.4	23,933,070	26.5	-15.4
9	잡제품	492,667	0.6	10.0	595,035	0.7	20.8

6) 주간 무역(2013. 12. 4)미 연준, 양적완화규모 그대로 유지기로 결정

| 그림 3-2 | 對미 FTA 발효 전후 수출금액(품목군별 비중)



한·미 FTA 발효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 산업군별 수출 비중에는 큰 변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류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발효 전 39.5%에서 발효 후 44.3%로 더욱 증가하였으며, 전자전기제품은 발효 전 33.8%에서 발효 후 26.5%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1) 수출증가품목군 : 생활용품 > 광산물 > 기계류 > 잡제품

① 생활용품 : 높은 수출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출비중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 생활용품 수출증가율은 모든 품목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39.3%를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발효 전 0.8%에서 발효 후 1.1%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용품의 수출 비중은 전체 산업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금액 역시 잡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예품의 수출증가율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가구가 48.3%, 완구 31.4%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생활용품의 수출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높은 수출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공예품과 가구, 완구의 수출증가율이 의미하는 바는 크지 않다.

또한 이들 품목은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0% 인 품목으로 한·미 FTA의 특혜관세효과라기 보다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일반적인 수출증가의 효과와 함께, 선진국과의 FTA체결로 소비재에 대한 수출품목이 다변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② 광산물 : 제트유 및 등유를 중심으로 한 FTA 효과

한·미 FTA 발효 후 두 번째로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광산물 제품이다. 발효 전과 비교하여 38.5%의 수출증가율을 나타낸 광산물제품에는 광물, 광물성연료 등이 포함되며 광물성연료에는 석탄, 석유제품, LPG 등이 포함된다.

광산물 품목 중 수출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석유제품으로, 2012년 수출금액 28억 달러에서 2013년 10월 누적 수출금액이 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6%가 증가하였다. 석유제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트유 · 등유 제품으로 이로 인해 울산시의 대미 수출은 사상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⁷⁾

특히 제2710호의 석유제품의 경우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배럴당 52.5센트의 종량세 물품으로 한 · 미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수출이 크게 증가한 대표적인 FTA 수혜 품목으로 볼 수 있다.

③ 기계류 : 자동차 (12.9%) 및 자동차 부품 (9.5%)의 수출증가가 견인

기계류는 미국 총 수출금액의 44.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 FTA 발효 후 증가율 역시 21.1%를 기록하여 주요 FTA 수출품목으로 손꼽힌다. 기계류 중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의 수출증가율이 12.9%, 9.5%를 기록하여 기계류 수출증가를 견인하였다. 특히 2.5%에 달하는 자동차(제8703호)와 자동차 부품(제8708호)의 수입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및 자동차관련 수출업체들의 수출증가가 돋보였다.

또한 미국의 주요 산업을 견인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경기회복추세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OEM 생산업체로부터 구매물량을 확대하는 점도 수출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자동차가 고급화 대형화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과, 미국시장에서 한국자동차에 대한 이미지 상승으로 인한 수출실적 증가 역시 증가율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⁸⁾

(2) 수출감소품목군

① 전자전기제품 :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

전자전기제품은 기계류에 이어 2위 수출에서 두번째로 비중이 높은 물품이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39.7%), 반도체(9.8%), 컴퓨터(0.6%)가 있다.

전자전기제품의 2013년도 수출은 2012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1년의 수출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2011년에 92억 달러의 수출금액을 나타냈으나 2012년에는 57억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 10월 누적 65억 달러로 2011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코드분할식 전화기(-6.8%), 시분할식전화기(-48.2%), 기타무선전화기(-71.2%)등의 수출이 감소하였다.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수입세율이 0%인 관계로 한·미 FTA의 효과가 없었던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중 북미수출용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점 등이 주요 수출감소원인으로 판단된다.

7) 파이낸셜 뉴스(2013. 10. 16) '울산 대미수출 올 100억불 넘는다'.

8) 경향신문(2012. 12. 9) '에쿠스, 미국서 최고 럭셔리 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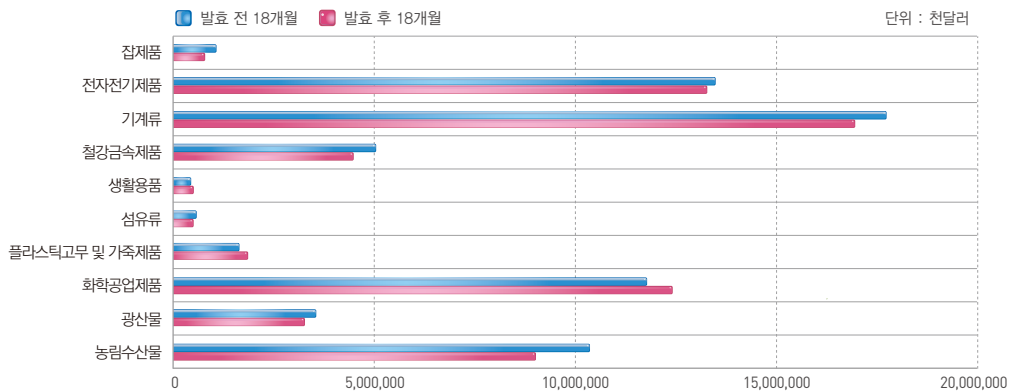
3) 품목군별 수입동향

| 표 3-2 | 對미 FTA 발효 전후 수입증감률 (MTI 1단위)

단위 : 천달러, %

MTI 1단위		발효 전 18개월 (2010. 9 - 2012. 2)			발효 후 18개월 (2012. 3 - 2013. 8)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총계		65,841,205	100	25.9	63,162,737	100	-4.1
0	농림수산물	10,349,613	15.7	35.0	9,035,604	14.3	-12.7
1	광산물	3,581,166	5.4	95.3	3,307,499	5.2	-7.6
2	화학공업제품	11,778,213	17.9	24.0	12,428,266	19.7	5.5
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668,324	2.5	31.5	1,832,894	2.9	9.9
4	섬유류	612,798	0.9	42.0	531,729	0.8	-13.2
5	생활용품	435,455	0.7	20.1	480,625	0.8	10.4
6	철강금속제품	5,084,519	7.7	19.0	4,457,529	7.1	-12.3
7	기계류	17,758,978	27.0	21.9	16,998,412	26.9	-4.3
8	전자전기제품	13,502,360	20.5	18.5	13,293,963	21.0	-1.5
9	잡제품	1,069,779	1.6	8.7	796,215	1.3	-25.6

| 그림 3-3 | 對미 FTA 발효 전후 수입금액 (품목군별 비중)



(1) 수입증가품목군 : 생활용품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화학공업제품

① 생활용품 : 'Made in USA' 완구 선호도 증가

생활용품은 우리나라의 對미 수입품목 중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이에 따라 높은 수입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입금액은 전체 수출 중 0.8%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증가금액도 작다. 구체적으로는 운동기구, 신발, 가방, 완구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며 기본세율 8%의 관세 철폐에 따라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기구와 완구 등의 물품은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도가 크게 나뉘는데, 특히 완구용품은 유럽 및 미국산 어린이용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중국산 장난감에서 납 검출 등 유해성이 언론에 보도되고⁹⁾, 출산율 감소에 대한 1인당 육아지출이 증가하면서, 아이들 완구용품도 중국산 보다는 유럽 또는 미국산 완구용품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 소가죽, 밍크코트 등 고관세 품목 수입증가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의 수입은 발효 후 기준 전체 중 2.9%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주로 에틸렌중합체 필름, 각종 플라스틱 제품과 소가죽, 밍크모피 등이 주요 품목이다.

수입 증가율은 발효 이후 18개월간 약 9.9%로 생활용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용품과 마찬가지로 절대 수입금액이 낮기 때문에 실제 수입증가금액은 크지 않다.

단일제품으로 수입금액이 가장 큰 소가죽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밍크모피의 경우도 2012년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밍크모피는 기본세율 16%에 해당하는 고관세 품목으로, 관세 이외에도 개별소비세와 농특세, 교육세 등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품목이다. 그러나 한·미 FTA의 적용으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및 기타 내국세의 감소가 수입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③ 화학공업제품 : 경쟁력 우위로 미국 의약품의 지속적 수입증가 전망

화학공업제품은 기계와 전자전기제품에 이어 세 번째로 수입비중이 높은 주요 수입품목이다. 화학공업제품의 한·미 FTA 발효 후 18개월 간 수입은 약 124억 달러로 발효전 동기대비 5.5%가 증가하였다. 주요 품목으로는 합성수지, 농약 및 의약품, 정밀화학원료, 기초유분 등이 있다.

의약품은 전통적으로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국가의 경쟁력이 강하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로부터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왔다.

9) 파이낸셜 뉴스(2013. 11. 7), '유해물질 장난감 등 14개 제품 리콜'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기술력 향상으로 수출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수입 규모가 훨씬 큰 편으로 적자 규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의 의약품이 한·미 FTA의 관세인하 효과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의약품의 관세양하는 즉시 철폐가 아닌, 단계적 철폐라는 점, 그리고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유예된 '의약품 허가 및 특허 연계제도'¹⁰⁾가 2015년 시행될 경우 국내 미국산 의약품의 수입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수입감소품목군 : 잡제품 > 섬유류 >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 제품은 미국 수입의 14.3%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품목이다. 수입감소율은 -12.7%로 잡제품과 섬유류에 이어 세번째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밀과 옥수수, 대두 등 곡물류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입 역시 주요 수입 감소품목에 해당한다.

① 밀 : 미국내 공급부족과 다른 수출국과의 경쟁

2013년 미국은 밀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전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5개년 평균비율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주로 적색경질밀 (HRW) 지역에서 가을과 겨울에 가뭄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밀 수출국들(카자흐스탄, EU,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밀생산국들이 2013년 초반 높은 밀 가격으로 파종을 늘렸기 때문이다.

미국내 밀 공급 부족과 다른 주요 수출국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2013년도 미국의 밀 수출은 전년보다 약 100 백만 부셀이 적은 950백만 부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동향으로 인하여 한미 FTA의 밀 관세 인하¹¹⁾에도 불구하고 대한국 수출은 큰 영향이 없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옥수수 :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가뭄으로 인해 2010년도 1,834 백만 부셀에서 2012년 900백만 부셀로 50%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2013년에는 약 1,500 백만 부셀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가뭄의 전후인 시기에 있는 한-미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수출량은 가뭄의 영향으로 인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에는 옥수수 공급이 늘어난 만큼 원료가격의 하락, 경제성장, 동물 사료 수요의 증가로 인해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료용 (328%) 및 팝콘용 (630%) 옥수수의 높은 관세율이 철폐됨에 따라, 향후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는 의약품 특허권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복제약품(제네릭, Generic)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 6월 합의한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 신청을 한 뒤 미국 제약사의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허가 절차가 자동 정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허권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 제네릭이 판매되지 않도록 허가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2010년 12월 타결된 한·미 FTA 추가 협정문에 따르면, 복제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매일경제, 매일경제닷컴)

11) 기준세율 4.2%에서 발효 직후 3.4%, 2013년도 2.5%

③ 대두 : 수확량 감소와 중국 대두 수요 급증

미국산 대두수입의 감소는 중국의 대두수요 증가와 미국내 대두 생산량 감소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대두 수출은 공급이 증가함과 동시에 중국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대두 분쇄부문 확장, 식품 제조, 사료 소비, 대두박 수요, 정부 비축정책 등으로 전 세계 대두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과 2012년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단위당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2010년에는 에이커당 43.5 부셸 수준의 수확량이 2012년에는 39.6 으로 감소하였다.

④ 쇠고기 : 국내산 쇠고기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입량 감소

미국산 쇠고기는 2005년 이후 2012년 처음으로 수입량이 감소하여 총 87,192 톤이 수입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20% 수준 감소한 수치이다. 수입 감소에 대하여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는 한국의 2013년 1~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5만7997기로 작년 같은 기간 6만5706기보다 11.7% 줄어드는 등 전체 수입육 물량은 1년 새 5.5%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국 쇠고기시장은 공급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내산 한우의 공급 과다와 경기침체로 육류 소비 증가폭이 작아지면서 미국산뿐 아니라 전체 쇠고기 소비량이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한우사육 마릿수 과잉 현상 탓에 한우 가격이 저렴해져 소비자들이 굳이 수입 쇠고기를 찾을 이유가 없어졌다. 한우는 물량 과다 현상으로 평년보다 낮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한우협회 등이 소비촉진을 위한 ‘반값’ 할인행사를 마트에서 자주 열면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¹²⁾

국내 육우공급과잉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쇠고기 물량의 감소도 수입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수입 쇠고기의 공급 부족 탓에 가격도 뛰여 지난해 4만9800원이던 미국산·호주산 LA식 갈비(2kg)는 현재 5만9000원으로 18.5% 비싸졌다.¹³⁾

⑤ 돼지고기 : 구제역 우려 종식과 함께 되살아난 국내 생산

우리나라는 2011년 구제역 발생 직후 당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매우 높았으며, 이에 따라 수입금액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구제역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난 뒤인 2012년, 국내 축산 기반이 정비되면서 국내산 돼지의 소비가 되살아났으며, 이와 함께 국내 사육 마리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돼지의 소비증가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은 다시 구제역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수입 감소는 FTA의 영향보다는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감소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2) 매일경제, 힘 잃은 수입쇠고기, 2013. 9. 29.

13) 2013년 11월 기준, (동아닷컴, “수입 쇠고기 국내시장 인기도를 살펴봤습니다”)

II. 미국의 한·중·일 교역

1) 미국의 전세계 수출입 동향

2012년 12월 기준 미국의 對세계 수출은 전년대비 4.5%, 수입은 3.1%로 각각 증가하였다. 2011년에 비하여 증가폭은 높지 않으나,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조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과 수입의 증가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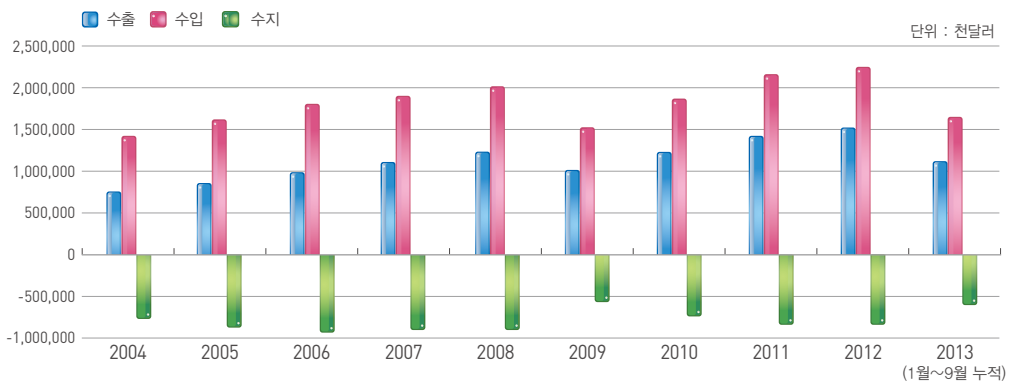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수지는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약7천억 달러 수준이다.

2) 미국의 한·중·일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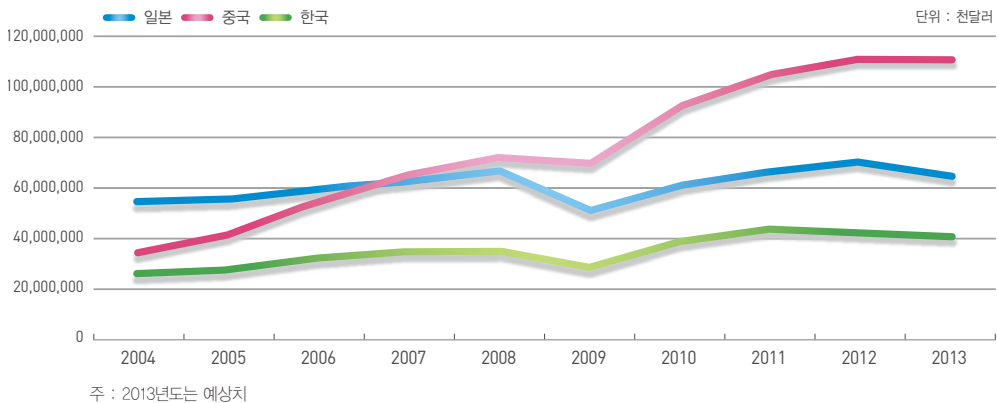
(1) 미국의 한·중·일 수출동향

다음은 미국의 對한 수출 주요 20개 품목 중, 중국과 일본과의 수출증감률을 비교한 표이다.

| 그림 3-4 | 미국의 對세계 수출동향 (2004 - 2013)



| 그림 3-5 | 미국의 對 한·중·일 수출동향 (2004 - 2013)



20대 품목 중 일본과 중국과 비교하여 한·미 FTA 발효 이후 18개월 (2012.3 ~ 2013.8)간 수출금액이 발효 전 18개월 (2010.9 ~ 2012.2) 수출금액보다 증가한 품목은 총 8개품목이다.

미국의 수출증가 품목은 전자집적회로(제8542.31호), 의약품(제3004.90호), 광학식기기(제9031.41호), 항공기 부분품(제8803.30호), 밀(제1001.99호), 대두(제1201.90호), 전자집적회로 (제8542.39호) 등이다.

(2) 미국의 한·중·일 주요 수출품목

미국의 對한 주요 20대 수출품목 중, 중국과 일본과 비교하여 수출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집적회로 : 한국 (135.2%) > 일본 (23.1%) > 중국 (-33.8%)

전자집적회로는 컴퓨터, 휴대전화, TV, MP3 등 디지털 소비제품에 주로 장착되는 중간재 제품으로, 우리나라는 전자집적회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MFN 0%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무관세 품목이다.

따라서 미국의 對한 전자집적회로 수출증가는 FTA의 효과라기보다, 오히려 2012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스마트폰 열풍으로 전자집적회로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그 중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생산국인 한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3-3 | 미국의 한·중·일 수출동향 (2012.3~2013.8)

단위 : 천달러, %

HS 6단위		한국		중국		일본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5,004,994	25.3	41,430,664	-1.9	19,489,105	23.0
2	8542.31	3,259,697	135.2	2,603,672	-33.8	574,398	23.1
7	1001.99	763,826	6.6	877,568	383.6	1,667,476	-7.4
9	3004.90	950,785	83.0	697,334	40.1	3,138,438	20.6
12	8803.30	654,001	11.4	6,030	4.4	1,019,444	13.1
14	9031.41	533,728	54.1	116,626	-42.1	102,536	-37.6
15	1201.90	486,997	5.5	16,054,590	-21.4	1,528,304	-1.4
17	8542.39	575,536	1.9	945,789	5.4	585,729	44.2

증감률: 직전 동기대비 개별 국가의 해당품목의 증감률

② 의약품 : 한국 (83.0%) > 중국 (40.1%) > 일본 (20.6%)

의약품 기본세율 8%가 한·미 FTA의 발효로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미국의 對한 수출금액이 증가하였다. 의약품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며 한·미 FTA의 발효 이전부터 미국의 주요 관심대상이었다. 업계 당사자는 미국의 의약품 수출증가는 관세인하효과와 더불어 한미 양국의 의약품 국제경쟁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③ 반도체 검사용 기기 : 한국 (54.1%) > 일본 (-37.6%) > 중국 (-42.1%)

반도체 검사용 기기는 우리나라 MFN 관세율 0% 품목으로 한·미 FTA 양허대상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효 후 54.1%에 달하는 對미 수입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미국의 일본수출이 -37.6%, 중국수출이 -42.1%로 각각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과 비교할 때, 미국의 한국수출시장의 비중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對한 수출증가의 배경에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제조에는 반도체 검사용 기기가 필요한 현재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일본의 경우 2012년 수입금액 93억엔으로, 2007년의 578억엔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본 자체기술로 반도체 검사기기를 제조하여 직접 반도체 생산에 사용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도 과도한 수입의존도 탈피를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④ 대두 : 한국 (5.5%) > 일본 (-1.4%) > 중국 (-21.4%)

제1201호에 속하는 대두는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하여 기본세율 3%가 즉시 철폐된 품목으로 미국의 對한 수출은 발효 이후 약 5.5%의 對한 수출증가율을 나타냈다.

물품 특성상 대두는 국가정책과 관련성이 깊은데, 대두의 주요 생산국인 미국은 지난 10년간 중국으로의 수출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특히 중국은 이상기후와 중국내 수급문제로 미국산 대두를 대량 수입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중국내 가축사료 수요둔화 및 국내 공급 증가로 미국산 대두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2011년 대지진으로 인해 항구에 위치한 사료 및 육류 가공업체들의 생산설비가 타격을 받으면서 이들의 곡물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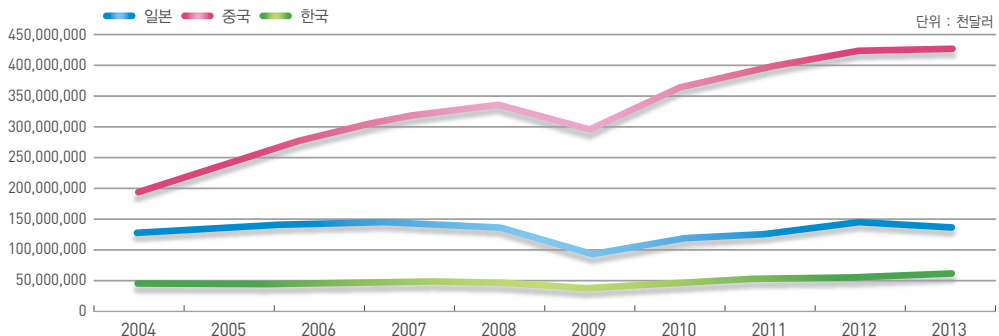
3) 미국의 한·중·일 수입

(1) 미국의 한·중·일 수입동향

다음 [표 3-4]는 미국의 對한 수입 주요 20개 품목 중, 중국과 일본과의 수출증감률을 비교한 표이다. 20대 품목 중 일본과 중국과 비교하여 한·미 FTA 발효 이후 18개월 (2012.3 ~ 2013.8)간 수입금액이 발효 전 18개월 (2010.9~2012.2) 수입금액보다 증가한 품목은 총 4개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전자집적회로(제8542.39/32호), 자동차 부분품(제8708.29호), 자동차자료처리기계 (제8471.41호)이다. 전자집적회로 중 메모리(제8542.32호)의 경우 30.7% 증가하였으며,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8542.39호)는 중국과 일본 모두 수입금액이 감소한데 반하여 對한국 수입만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6 | 미국의 對 한중일 수입동향 (2004 - 2013)



주 : 2013년도는 예상치.

| 표 3-4 | 미국의 한·중·일 수입동향 (2012.3 - 2013.8)

단위 : 천달러, %

HS 6단위		한국		중국		일본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45,077,232	6.7	135,435,045	21.0	67,419,455	16.7
4	8542.39	2,816,913	2.3	725,227	-6.1	600,581	-26.0
11	8708.29	1,277,579	44.0	1,372,317	28.1	979,130	7.5
16	8542.32	1,112,658	30.7	700,523	26.7	736,197	6.1
17	8471.41	609,917	91.9	1,616,360	-19.9	42,025	-22.1

(2) 미국의 한·중·일 주요 수입품목

① 전자집적회로 : 한국 (30.7%) > 중국 (26.7%) > 일본 (6.1%)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다. 전자집적회로는 수입관세율 무세인 품목으로, 한·미 FTA 관세철폐 효과는 없었음에도 발효 이후 약 30%에 달하는 對한 수입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테슬라 자동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테슬라의 'Model S'는 순수전기만을 사용하여 주행하는 자동차이다.¹⁴⁾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자동차에 비하여 전자 및 전기부품의 사용도가 높으며, 미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도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테슬라의 CEO 엘론 머스크는 삼성과 LG등의 국내 업체로부터 부품 조달과 관련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집적회로의 수출 역시 미국내 경기회복과 동반하여 향후 더욱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② 자동차 부품 : 한국 (44.0%) > 중국 (28.1%) > 일본 (7.5%)

제8708호의 자동차 부품은 약 2.5%에 달하는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즉시 철폐되면서 한·미 FTA의 수혜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발효 이후 약 44%에 달하는 높은 수입증가율을 나타냈다.

자동차 전문조사기관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최악의 위기를 맞아 다수의 자동차업체가 파산한 2009년 이전 수준인 2007년 판매량 1,600만대에 매우 근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자동차 관련 부분품 수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자동차자료처리기계 : 한국 (91.9%) > 중국 (-19.9%) > 일본 (-22.1%)

제8471.41호에 속하는 자동차자료처리기계는 미국 수입관세율 무세인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對한국 수입증가율이 91.9%로 나타나, 중국과 일본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제8471호 품목의 대미수출 증가는 우리나라 태블릿 PC의 對미 수출호조와 관련이 깊다. 2010년 애플의 아이패드 출시 이후, 태블릿 PC 시장이 창출되었고 이는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던 컴퓨터 시장을 더욱 잠식하여, 관련업계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 미국, 대만 등이 주요 태블릿 PC 제조업체이나 현재 태블릿 PC 시장은 미국의 애플과 한국의 삼성이 주도하고 있으며, 삼성의 '갤럭시 탭'이 점차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아가고 있다.¹⁵⁾

태블릿 PC의 출시와 함께 그 동안 품목분류로 인하여 분쟁이 있었는데, 지난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 (2012. 5. 22)에서 태블릿 PC를 제8471호로 최종분류함에 따라, 해당 호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14) 조선일보(2013. 11. 22), '전기차를 차가 아닌 IT기기로 접근... 테슬라 열풍 일으켜'

15) 국민일보(2013. 11. 19), '삼성, 태블릿 PC 시장 20% 점유'

III. 한·미 FTA 발효 2년차와 시사점

1) 한·미 FTA 발효에 대한 긍정적 평가

한·미 FTA가 발효된 '12년 3월 이후 18개월간 대미 수출은 발효전 동기 대비 약 7.8% 증가, 대미 수입은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수출은 5.7% 증가와 수입 -7.5% 감소의 영향으로 대미 무역 흑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對세계 수출은 1.9% 증가, 수입은 1.2% 감소하였다.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FTA로 인하여 對미 수출은 다른 경쟁국들에 비하여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석유제품 등의 높은 FTA 활용도로 인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었다. 수입의 경우 국내 농가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국내 축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는 정상화되었다.

미국 USITC에 따르면 한·미 FTA 관세혜택에 의한 대미 수출 증가에 따라 한국의 FTA 활용률이 상승하였다. 2013년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5.59% 상승하여, 우리수출기업이 FTA에 대해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한·중·일 미국시장에서의 격화

한·미 FTA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미국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나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역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중국은 지난 경제발전전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대 미국 수출금액이 1,960억(2004년)에서 4,277억(2013년 예상)으로 약 118%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460억(2004년)에서 630억 (2013년 예상)으로 동기간 36.9%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아베노믹스¹⁶⁾로 불리는 일본의 경제정책은 엔화약세를 초래하여 미국시장에서 일본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업체들의 FTA 효과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단순히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삼아선 안되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보다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여야 한다.

3) 단계적 철폐 물품의 FTA 자원 강화

한·미 FTA 양허품목 중 화물자동차(제8704호), 남성용 셔츠(제6105호), 플라스틱 판(제3920호) 등의 품목은 발효 10년차인 2021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품목이다. 이러한 품목들은 미국에서 고세율 또는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FTA의 효과도 더디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관세 단계철폐 품목과 관련된 국내 수출자들은 보다 장기적으로 FTA 활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당 물품의 관세가 아직 낮은 수준이 아니므로 특혜활용이 낮은 것을 기회로 원산지 규정의 충족, 서류보관, 미국내 바이어 물색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대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16) 일본의 경기 회복,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과 엔고(円高) 탈출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정책 [네이버 지식백과] 아베노믹스 [Abenomics]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4) TPP와 한·미 FTA

TPP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비관세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미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개국이 금년 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TPP협정을 주도하여 왔으며 일본의 아베내각 출범이후 참가의사를 표명하였고 4월 20일 협상 참여를 참가국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증대하였다.

또한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7월 1차 협상을 마무리 하였으며 11월 11일 2차 협상을 종료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TTIP 타결시 EU는 1,200억 유로, 미국은 900억 유로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¹⁷⁾

일본의 TPP 참가, 미국과 EU의 TTIP 추진 등 이제는 미국시장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기타 다른 경쟁국들이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만큼, 한·미 FTA로 인한 시장선점효과를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5) 미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

미국은 발효 2년차이내만큼 원산지 검증에도 적극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 관세청은 지난 6월 국내 60여개 수출대기업에 원산지증명을 요구함으로써 본격적인 원산지검증의 시기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다른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인 '순원가법'을 정하고 있어 동 규정을 활용한 업체의 경우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순원가법은 비원산지 재료뿐만 아니라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등 관련 제비용을 모두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FTA 원산지전문가 육성, 서류보관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유관기관도 FTA 활용과 더불어 검증에 대비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 홍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17)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2013)